



쉬 나무

(학명 : *Evodia daniellii*, 운향과)



〈쉬나무 개화 전경. 쉬나무의 개화기간은 7월 초순에서 8월 중순까지 약 40일되고, 한 화서에는 꽃이 3,000개쯤 된다.〉

쉬 나무는 7월 초에 꽃이 피기 시작하여 약 40일간 흰색같은 아주 연한 노란색의 꽃이 많이 피는 밀원식물이다. 7~8월에 고속도로변이나 마을 주변에 밤나무꽃처럼 나무 전체를 덮어 흰꽃으로 덮혀있으면 이 나무이다. 지난 해 경북 영천지역에서는 7월 9일에 피기 시작하여 8월 14일까지 피었다. 한나무에서 개화기가 이렇게 긴 것이 아니고, 좀 일찍 피는 나무와 늦게 피는 나무를 합하여 개화기가 이렇게 길다. 이번 봄에는 이상난동으로 꽃들이 2주이상 빨리 피기도 하였으나, 6월경부터는 정상적인 시기에 꽃이 피었다. 화서 하나를 잘라 꽃을 헤아려보았더니 화서 하나에 3,000개쯤 되었다.

쉬나무꽃이 피는 이 기간도 역시 꽃 피는 식물이 별로 없고, 장마기와 일치되어 양봉가들이 설탕물을 식량으로 주어야 된다는 시기이지만, 이 쉬

나무가 많으면 식량을 주지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채밀도 가능할 것이다.

이 나무는 우리 나라 각처의 마을주변이나 전답의 변두리, 도로변 등에 자라는 낙엽소교목으로 중국에도 분포하며, 높이 10m 까지 자란다. 잎은 대생하며 7~11매의 소엽으로 구성된 기수일회우상복엽이다. 소엽은 타원형 난형 또는 장난형이며 길이 5~12cm이다. 점첨두이고 원저 또는 넓은 설저로 파상거치가 있다. 잎 뒷면은 회록색이며 맥액에 꼬부라진 털이 있다. 가지 끝에 원추화서가 나와 꽃이 피고, 열매는 삭과로 10월에 연한 갈색으로 익으며 5개로 갈라지며, 산초나무 씨같이 윤기가 나는 검은 씨가 한개씩 들어있다. 이 씨로 기름을 짜서 등유, 머릿기름 또는 해충구제로 사용하였고, 씨는 또한 새의 먹이도 된다.

제2 오일쇼크때 건국대학의 홍모교수가 '이 나무의 씨에서 기름이 나온다'고 하여, 동아일보 예선가는 '우리나라도 이제 산유국'이라는 사설이 나온 적도 있다. 홍교수는 그후 실제로 이 나무에서 기름을 생산하는 등의 실험을 하였다. 아래의 이야기는 홍교수와 의 대화에서 얻은

지식을 정리한 것이다.

쉬나무는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쉬나무로, 경상도에서는 소동나무로, 전라도에서는 수유나무로 불리고, 일본에서는 오수유로 불린다. 북한에서도 수유나무로 부른다. 수목도감(홍성천 저, 계명사)에는 '오수유(E. officinalis)는 5-6월에 꽃이 피고, 잎 뒷면에 털이 있고, 열매 끝이 둥근 것'으로 쉬나무와 다른 수종으로 기술하고 있다.

건국대 홍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산 쉬나무는 나무가 크게 자라나 꽃이나 열매는 국산보다 적다. 모든 생물체가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데, 영양생장을 많이 하면 생식생장을 적게 하고, 반대로 생식생장을 많이 하면 영양생장에 지장을 받는다.

옛날에는 쉬나무 열매에서 기름을 짜 등불의 기름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마을 주변에 심었으며, 특히 서당주변에 많이 심었다. 또한 봉화대근처에도 많다. 강원도 정선에 아릅드리나무가 있었으나 수년전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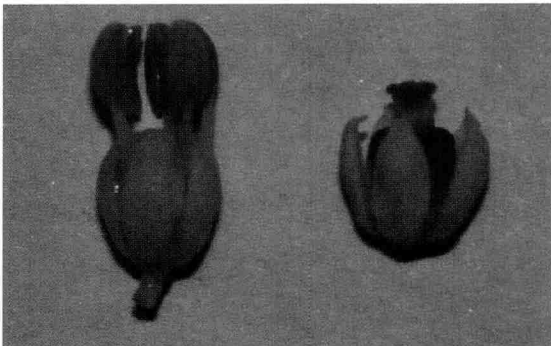
홍교수가 전국의 초등학교에 편지를 보내 접수를 요청하였더니 300여곳에서 접수를 보내왔다. 그것을 접목하여 건국대 구내에 심어 지금도 300여본이 잘 자라고 있다. 그러나 홍교수의 정년이 수년밖에 남지 않았고, 나무가 있는 지역도 다른 용도로 개발될 듯하여 이 나무들도 없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 나무는 꽃과 열매가 많이 생산되어 영양소모가 많으므로 비료부족을 느낄 때가 많다. 비료, 특히 붕소가 부족하면, 씨가 빨리 떨어지거나 열매를 채취하여도 씨가 없는 쪽정이가 많다. 대구대학교에서 2000년에는 아차하는 순간에 씨를 전혀 채취하지 못하였고, 2001년에는 씨를 많이 채취하였으나 95% 이상이 쪽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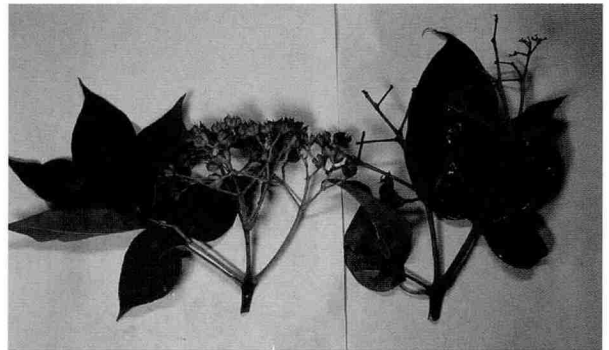
꽃은 7~8년생이 되어야 피기 시작하고, 접목을 하면 그 해 피기도 하나 다음 해부터 피지 않는다. 즉 나무 크기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여야 꽃이 피므로 굳이 접목을 할 필요없이 빨리 나무가 크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충실한 종자는 노천매장을 하면 90% 정도 발아하고, 노천매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합성세제(풍풍 등)에 모래를 섞은 것에 종자를 넣고 30분쯤 흔들어 씨껍질에 묻은 기름기를 제거하여도 70~80% 발아한다.

쉬나무는 자웅이주(雌雄異株)이다. 어느 도감에도 자웅이주라는 말이 없어, 열매가 없는 나무는 열매가 일찍 다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금년에 관찰해보니 자웅이주가 틀림없는 듯하다. 꽃이 피었을 때 맨눈으로 보아 수술같은 것이 튀어올라있으면 숫나무이고, 8월말쯤 열매가 달려있으면 암나무이다. 대구대학교에는 20년생 정도의 나무가 50본쯤 있는데, 꽃이 피는 나무를 조사해보았더니 암나무가 14본, 숫나무가 13본이었다. 3년전부터 일찍 피는 나무와 늦게 피는 나무를 확인하고 있다. 개화기를 더 빨리, 또는 더 늦게까지 피게 한다면 쉬나무는 가장 유망한 '한여름의 꿀나무'가 될 것이 틀림없다.



〈쉬나무의 수꽃(왼쪽)과 암꽃(오른쪽)의 사진. 희게 보이는 것이 꽃잎이다.〉



〈쉬나무 암나무의 열매(왼쪽)와 수꽃이 다 떨어진 화서(오른쪽).〉